

교육부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인력수요와 청년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학기 당 2백만원) 지원
 - 장학생은 졸업 후 일정기간(장학금 학기 수 × 6개월) 의무 재직(창업유지)

☐ 예산 및 재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45,880	50,860	50,860 (100%)	45,88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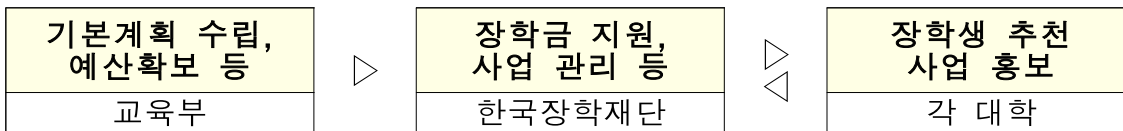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장학재단법 제5조(국가의 책무)

□ 주요 지원대상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전문대 2학년, 4년제 3학년 이상)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해당없음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2,665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1%,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1.6%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60.3%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39.7%)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청년(96.9%)의 지원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년(2.3%), 장년(0.8%), 고령(0.0%)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국가장학금 지원	2,665 (100.0)	1,607 (60.3)	1,058 (39.7)	2,583 (96.9)	61 (2.3)	20 (0.8)	1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1,837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5%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6.3%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89.8%)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는 5.6%로 낮은 편임.
*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산업별) 서비스업(65.7%)의 참여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21.3%) 및 건설업(8.1%)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국가장학금 지원	1,837 (100.0)	1,649 (89.8)	102 (5.6)	392 (21.3)	148 (8.1)	1,207 (65.7)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국가장학금 지원	89.9	10.8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주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주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창출 전체	4.18	4.18	4.18	4.37	4.22	4.16	3.98	4.17	4.26	4.16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4.34	4.36	4.30	4.53	4.32	4.46	4.11	4.05	4.37	4.34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창출: 지원대상(31.3) > 지원수준(26.0) > 지도/관리(11.1) > 지원기간(8.6) > 신청절차(6.5) ; 없음(16.5)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창출: 신청절차(5.6) > 지도/관리(4.4) > 지원기간(3.7) > 지원수준(2.6) > 지원대상(0.5) ; 없음(83.3)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창출: 4.44점, 추천(86.5=25.5+61.0) > 보통(10.7) > 비추천(2.8=2.3+0.5)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수요와 대졸 청년인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한 재직기간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중요성이 인정
 - 국정과제(52-6)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된 사업
 - 범부처 중단기 계획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등에 포함되어 '20년 청년지원 추경에서 51억원을 증액

□ 일자리 사업 성과

- 중소·중견기업 의무재직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허용하여 조기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장기재직 유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재직자의 의무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해주고, 종료후 청년내일채움공제(최대 3년)에 가입하여 취업 이후 최대 4.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
- 최초지원 사업장은 300인 미만 기업이 89.8%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최초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6개월 89.9%로 다른 지원금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성과를 보임
- 본 사업은 참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 운영의 적절성

- 장학금 수혜학기×6개월의 의무재직 요건이 있고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수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수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확인 및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무 재직기간 이후에는 추적이 어려워 장기근속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

- 유사 사업으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있는데, 학생의 소득수준이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에 속한다면 학기별 2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당 사업과 경합성이 높은 편
 -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중위소득 200% 이하), 성적기준 등의 요건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8구간 33.75만원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까지 지원가능

□ 제도개선 노력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취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의무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해야 하는 고충 발생